

3/23(수) 삼상 19-22장 흐름을 거스르는 자, 사울

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 없습니다.

둘 중 하나는 내려와야 끝나는 긴 싸움이 시작됩니다.

다윗의 도피를 돕는 자는 사울의 아들과 딸입니다(19-20장).

사울은 자신 뿐 아니라 아들의 왕위를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 애쓰지만(20:31),

왕세자 요나단은 겹옷, 군복, 무기를 주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(18:4, 23:17).

사울은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딸을 <올무>로 내걸었지만(18:25),

그의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아버지보다 남편을 선택합니다(19:12).

이 혼인은 이후 다윗에게 정통성을 제공합니다(삼하3:15-16).

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합니다(19:18).

사무엘이 사울로부터 도피한 다윗을 받아들이면서

다윗은 <옛 체제>, 선지자에게 인정받은 자가 됩니다.

눌 땅, <제사장> 무리에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합류했고(22:20),

선지자 갓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(22:5).

다윗 왕정은 도피 중에 점점 모습을 갖추어갑니다.

옛 체제와 왕세자(사무엘, 요나단), 적국이 그를 왕으로 인정합니다(21:11).

선지자와 제사장, 예봇이 모두 다윗에게 속해 있습니다.

반면, 사울은 다윗 사냥으로 인해 날마다 <자리>를 비웁니다.

하나님의 영에 가로막히고, 스스로 <옷>을 벗습니다(19:20-21, 24).

둘 중 누가 진정한 왕일까요?

사울은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.

그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(25:20-21, 26:25).

그럼에도 뜻을 거스르며 하나님, 선지자, 아들, 사위 모두와 등을 집니다.

(15:34-35, 20:15, 32-33) 사울에게는 사람도 권위도 명분도 없습니다(22:17).

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악과 힘뿐입니다(22:18, 8:18 참조).

나는 하나님의 흐름을 인정하며 순복합니까?

① 하나님을 거스르며 지위와 소유, 관계와 명분 모두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?

② 스스로 수치와 고통, 자멸의 길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삼상 19-22장